
다문화가정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한 삶의 전환

문영숙*, 한진숙**, 박인숙***

Transition in Life of Immigrant Women through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Youngsook-Moon*, Jinsook-Han**, Insook-Park***

요 약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한국의 농촌에서 겪는 임신과 출산경험의 의미의 본질을 밝히 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A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여 녹취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해서 한국사회로의 삶이 전환되는 과정은 4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최종으로 도출된 4개의 범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새로운 위기를 겪음',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새 생명 속에서 희망을 느낌-삶의 전환'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을 전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수 있는 적극적인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여성, 임신, 출산, 삶의 전환

Abstract In order to clearly define and understand an essential meaning on a growing number of immigrant women with an experience of being in pregnancy and childbirth, who married to men living in rural community in Korea, our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Basic information collection was implemented by doing multiple in-depth interviews in being recorded with nine immigrant women married to the men, and also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witchover in their life on the course to adaptation or transition to Korean life with experience of being pregnant and delivery generally classified into up to four categories and nine subjects. The four categories come out with "expectation of unknown world/country", "being experienced of new challenge", "feeling happiness going through anguish of hear" and "expectation/hope with her giving birth to a baby-transition in her life". Thu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likely caused or felt in adaptation to Korea life and culture, and to provide solutions or information of a program for their being actively adapted that may help get them easily assimilated into Korean life and culture.

Key Words : Immigrant women, Pregnancy, Childbirth, Transition in life

1. 서론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고학력의 독신여성이 증가하고, 만혼 현상,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농촌 남성들이 배우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

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력이 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농촌 남자들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게 되자 저개발 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의 다문화 가정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 2009년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혼인의 10.5%로 10여년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제1저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10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2월 20일

사이에 10배가 증가하였으며[2]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외국여성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 출신들이다[3]. 계층 상승을 위해 결혼 이주를 한 이들이 만나는 배우자들 또한 한국 내에서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4]. 주로 농촌지역에서 첫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주여성들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각종 정보수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5].

임신과 출산 경험은 이주여성에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출현으로 인해 위기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다[6]. 즉,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이주 지역에 적응도 되기 전에 엄마가 되는 사건은 이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변화이며 지식과 지원이 요구되는 삶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7].

그러므로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이들에게 대처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절실한 것은 2020년 정도에는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8].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분만한 신생아에서 1분 아파가 점수가 낮고 태변 착색된 신생아가 많이 나왔다[9]. 이러한 결과는 산전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의무임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한국 내 적응을 돕는 것이다. 이들의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임신과 출산, 양육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며, 그 결과 국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게 되는 일이다[10].

그러므로 현재 한국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의 현실을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국내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사회인구학적 적응,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11, 12, 13, 14]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도시 지역이며 지역에 따라 출신국가나 학력, 언어 능력 등의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경기권 외에 중부권, 특히 농촌 이주여성에 관한 파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이러한 경험을 양적인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문영[9]은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 건강보다는 분만경험 지각과 같은 주관적 관심으로 연구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임신과 분만에 관한 양적 연구보다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적 연구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경험의 연구다. 본 연구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경험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이들이 겪는 임신과 출산 경험을 질적연구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한 삶의 전환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양적 연구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질적 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생생하게 발견하여 그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2.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군 단위의 A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 9명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9명으로 전

국적이 필리핀이 6명, 베트남이 3명으로 이들은 한국에 온 지 최소 3년 이상 되었다. 의사소통 정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 구사가 되고 참여자와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다.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면담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것과 윤리적 고려 사항,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을 설명하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No. 11-2)를 통과한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시 근교의 농촌지역인 A지역의 참여자 집을 찾아가 심층 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의 깊이를 더해 갔다.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 형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아 녹취를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총 9명의 이주여성이 참여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였다.

면담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횟수는 참여자 1인에 1 - 2회씩 실시하였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면담내용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Colaizzi[15]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내용을 녹취작업을 하였고, 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단어와 구, 문장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제와 주제 모음을 분명히 하고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미를 확인하는 순환 과정을 거치며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거주지는 읍 단위의 시골이며 연령은 주로 2-30대이며 남편 연령은 주로 40대 이상으로 참여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며 분만 장소는 모두 병원이었다. 산후조리는 6명이 보건소의 주선으로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 학력은 예상과 달리 1명을 제외한 8명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자녀수는 주로 2명이었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9)

본인 연령	20대	5
	30대	4
남편 연령	30대	2
	40대	4
본국	50대	3
	필리핀	6
한국거주기간	베트남	3
	3년	4
분만 장소	4년	2
	5년 이상	3
	병원	9
산후 조리	보건소, 가정	0
	산모 도우미	5
	시아머니	1
	친정어머니	1
학력	기타	2
	중졸 이하	1
	고졸	5
자녀수	대졸	3
	1명	1
	2명	7
	3명	1

3.2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자료 수집 후 분석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여 32개의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이 주제들을 묶어서 9개의 주제 모음을 구성하였고, 이를 4개로 범주화하였다. 이들 4개의 범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새로운 위기를 겪음’,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새 생명 속에서 희망을 느낌-삶의 전환’으로 도출되었다.

3.2.1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참여자들이 결혼생활과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새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친정가족이 있는 고향도 가지 못하는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표 2〉 범주 1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새로운 가족 속의 이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 받지못함 * 집안 노동력으로 이용당한다고 생각 *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해서 어려움 * 같은 민족끼리 만나는 것을 통제받음
	친정어로 향하는 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타국에서의 서러움 * 멀게만 느껴지는 시댁 식구들 * 애타게 보고 싶은 친정어머니 * 친정을 두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됨

범주 1은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1.1 새로운 가족 속의 이방인

결혼을 전제로 고향을 떠나 멀리 이국땅에 온 결혼 이주여성들은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시댁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경제 수단으로 동원되는 현실에 시댁 식구에게 한없는 원망을 하게 된다.

본국과 문화가 달라 적응이 잘 되지 못하고 정보에도 어두워서 한국에 대해서 알 기회도 거의 없다. 나이 차가 많은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참여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 두려워 동족과의 만남을 통제를 하게 되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 한국 내 적응이 더욱 어려워졌다.

3.2.1.2 친정어로 향하는 그리움

가난의 고통을 벗고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져 보다 여유있는 삶을 꿈꾸었으나 결혼의 현실은 꿈과 희망과는 동떨어진 눈물의 나날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시댁 식구들 속에서 외톨이라는 생각과 한국이라는 커다란 사회의 이방인이 되었다는 소외감으로 고국을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선택한 결혼이어서 이들의 서러움은 더욱 진하게 다가오게 되고 친정을 두고자 한 결혼이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신조차 버려진 느낌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은 친정어머니로 평소애 느끼지 못했던 그리운 마음은 가늘 길이 없을 정도로 깊어진다.

3.2.2 새로운 위기를 겪음

임신을 한 후 음식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입덧을 하면서 고국의 음식이 그리워지고 한국의 매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임신 중에 해야 하는 노동은 참여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이러한 고통은 친정을 생각하게 되고 고국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태교문화도 본국과 달리 다양하여 선택하기도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갈등을 겪게 된다. 태교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참여자는 신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태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범주 2는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2.1 입덧으로 고생함

참여자들은 결혼 후 후회와 함께 친정 가족에 대한 연민, 시댁 식구와의 이질감 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임을 알게 된다. 반갑기도 하지만 두

〈표 3〉 범주 2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새로운 위기를 겪음	입덧으로 고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음(본국 음식이 먹고 싶음) * 매운 한국음식 * 이질적인 환경으로 더 힘이 듦 * 임신 중에는 노동력으로 동원됨
	태교방법의 차이로 혼란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지 못했던 태교를 함 * 태교의 필요성을 느낌 * 방법이 다른 태교에 이질감을 느낌

렵기도 한 상태에서 입덧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음식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고국의 음식을 먹기란 쉽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주거지가 읍 단위 시골이라서 음식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원하는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임신 중 더 힘이 들었던 것은 임신이라고 배려해 주는 것보다 가난한 시댁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깎이 특성화 지역이라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임신부도 동원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 오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임신한 자신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3.2.2.2 태교방법의 차이로 혼란스러움

참여자들의 본국은 동남아권으로 저개발국이다. 그러므로 발전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중 태교도 이에 속한다. 어떤 참여자는 태교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도 없다고 하고 어떤 참여자는 들어 보기는 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주로 노래를 불러 준다고 하여 각종 도구를 활용하는 우리나라의 태교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태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에 미숙하므로 주로 본국의 방법으로 태교를 하였다.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법은 알지도 못하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더 깊은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2세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게 강하여 자식을 잘 낳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다.

3.2.3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참여자들은 고통의 임신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통해서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서운하고 서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시댁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같은 동족과 연계하여 가출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 소개비용과 결혼비용 등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단속과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기의 탄생은 시댁과 참여자 모두 축복할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산후조리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음식이 다르고 사계절 중 겨울에 출산을 하면 더욱 춥게 느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범주 3은 3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며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3.1 출산 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음

참여자들은 임신 중에 받은 소홀함과 달리 아기가 생기자 시댁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를 해 주었다. 임신기간에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소외 시켰던 가족들이 출산 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에 이미 이주해 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던 나이 많은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아기의 출현으로 일단 안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의 설 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아이가 자라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아기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도 경제권은 주지 않고 있었다. 대신 친절을 도울 수 있도록 약간의

<표 4> 범주 3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출산 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가족의 탄생으로 시댁이 모두 기뻐함 *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함 * 자신의 입지가 조금씩 늘어남
	친정과 다른 산후조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산후조리가 어색함 * 막연하게 고국이 그리움 * 모유수유가 어려워 실패함 * 산후 조리 음식이 달라서 고생함
	산후조리가 어려운 한국의 사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처음 겪는 추위속의 고통 * 추운 겨울 출산은 고통 그 자체 * 산후 조리를 잘 하지 못해 산후병 증상을 겪음

금전을 주는 형태로 보상을 해 주었다. 그래서 타국의 서러움이 줄어들고 집안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조금씩 다져지게 되었다.

3.2.3.2 친정과 다른 산후조리 방법

출산을 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보건소의 도움으로 산모도우미 제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어두워 이 제도를 모르고 남편이 해 주었거나 동서가 산후조리를 해 준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보건소의 도우미 제도에 만족하였으며 한국 정부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무척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입덧을 할 때도 망고 등의 과일이 먹고 싶어도 주거지역이 시골이라서 구입이 어려워 먹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려웠는데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로 입에 맞는 음식을 구하지 못해 식사를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식사량이 많지 않고 모유수유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참여자들은 모유는 주고 싶으나 모유수유를 성공하지 못했다. 가정경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국 여성보다 강한 편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3.2.3.3 산후조리가 어려운 한국의 사계절

더운 나라에서 온 참여자들은 생후 처음 겪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겨울에 출산까지 하고 나니 산후조리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그래서 분만 후 다시 겨울이 오면 젊은 나이인데 전신이 쭈시고 아프며 팔에 힘이 없어서 아기를 안지 못하는 증상을 겪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후병보다 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통증을 겪고 있었다.

3.2.4 새 생명 속에서 희망을 느낌 - 삶의 전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새 생명에 대한 기대였다. 아기를 낳고 나니 시댁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거니와 서서히 가족 내에서 발언권도 세어졌다. 자라나는 아기의 모습에서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한국에 와서 겪어야 했던 온갖 수모와 차별은 아기의 얼굴 속에 묻혀 갔다. 그 속에서 모성을 발견하게 되고 장래에 자식이 잘 되기를 고대한다.

범주 4는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4.1 모성을 발견함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되길 바라고 찾아 온 한국에서의 삶은 기대에 매우 어긋났다. 갖은 수모와 비인간적인 대접은 참여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그러나 출산의 아픔 후에 찾아 온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 삶이었고 희망이 보였다.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서 행복감이 다가오고 모성을 강하게 느끼며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나의 아이라는 동질감과 함께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새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픈 마음이 든다. 아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의 삶은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3.2.4.2 자식의 장래가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램

참여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시집을 왔으므로 한국에서 설움을 받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혀 자식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 아이가 말을 잘 못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자식에 대

<표 5> 범주 4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새 생명 속에서 희망을 느낌 - 삶의 전환	모성을 발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의 설움을 모두 씻어 냄 * 내 자식이라는 동지가 생기므로 너무 기쁨 *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싶음 * 세상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됨
	자식의 장래가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으로 아이가 잘못 될 것 같은 불안감 * 자식의 교육 계획을 남편에게 맡김 * 자식이 막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램

한 계획을 그래도 농촌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아 온 남편에게 맡기고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아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 부모보다 나은 멋진 한국인이 되기를 바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전환되는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새로운 위기를 겪음’,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새 생명 속에서 희망을 느낌-삶의 전환’ 등 4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왔으나 남편은 나이가 많고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13, 16].

윤명숙·이혜경[16]은 이러한 이들의 삶을 ‘갈수록 칙칙산중’이란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래서 고국이 그리워지고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진다. 고향을 떠나 올 때는 친정을 도우리라는 각오로 한국을 왔지만 시대도 경제력이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도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결과인데, 그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자체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는 읍 단위의 지역에서 연구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임신으로 입덧을 하지만 지식부족으로 산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 연구[17]와 일치하였으며 먹고 싶은 고국의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듯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 자녀의 출산은 어떤 혜택보다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기뻐한다. 자식이 한국인으로 자라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한 연구[16]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은 자식이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란다. 희망하

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자녀 양육을 남편에게 의지하게 된다. 자녀가 잘못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유은광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부관계와 자기효능감, 교육정도 등 양적인 결과[1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여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자녀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과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분만과 관련된 교육과 더불어 결혼이주 여성의 본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족의 노력도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특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 [2] 통계청(2011). 결혼 통계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1/index.board?bmode=read&aSeq=71058
- [3] 보건복지부(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2012. 10. 20.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323&page=1.
- [4] 김혜자(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11.
- [5] 한국염(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센터, 1-11.
- [6] Barn, R.(2003). Parenting in a ‘foreign’ climate: The experiences of bangladeshi mothers in multi-racial britain. *Social Work in Europe*, 9(3), 28-38.
- [7] O’Hanlon R.(2005) Mothering the new mother: women’s feelings and needs after childbirth. *Journal of Midwifery and Women’s Health*, 50, 435 - 436.
- [8] 통계청(2008).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비율.
<http://Kosis.nso.go.kr>
- [9] 김문경(2011).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결과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4), 407-414.

- [10] 김혜련(2009). 결혼이주 여성의 모자보건 및 모자영양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5, 50-64.
- [11] 윤현경 이승희, 최규일(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 건강 상태와의 관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 678-684.
- [12] 안병환(2009).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다문화교육 접근방향 탐색. 한국교육논단, 8(2), 155-177.
- [13]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 연구, 46(1), 141-181.
- [14] 차성란(2011).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0), 51-70.
- [15]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16] 윤명숙, 이해경(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2, 101-135.
- [17] 장인순, 황나미, 윤미선(2010). 결혼이민여성의 산전관리 실태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4), 326-335.
- [18]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2012). 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171-180.

박인숙



- 1978년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아 가족, 가족적응, 부모-자녀 관계, 질적연구
- E-Mail : ispark@cnu.ac.kr

문영숙



- 1997년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부모-자녀관계
- E-Mail : moon@konyang.ac.kr

한진숙



- 1995년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미혼모
- E-Mail : jshan@konyang.ac.kr